

담양군, 주민에게 찾아가는 '바퀴달린 문화도시 홍보단' 운영

담양 전체 아우르는 문화도시 시작 알리기 위해 읍면 직접 방문 작가가 그려주는 초상화·주민 아카이브 사진 촬영 등 문화체험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최형식)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들에게 담양군 문화도시를 알리기 위한 '바퀴달린 문화도시 홍보단'을 진행했다. '바퀴달린 문화도시 홍보단'은 담

양다운 문화도시를 소개하고, 담양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도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읍면을 직접 방문하는 문화트럭을 활용한 현장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도시추진단과 문화도슨트(Docent)가 문화도시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이고, 작가가 그려주는 초상화, 주민 아카이브를 위한 사진 촬영 등 문화 체험

을 통해 자연스럽게 담양다운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사는 한 주민은 "일평생 일만 하느라 문화를 접하지 못한 마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셔서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며 "담양 곳곳의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송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완료

하수관로 사업비 29억 투입

구례군은 토지면 송정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난 4일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하수처리장(Q=30톤/일) 1개소를 신설하고 하수관로 2.7km를 설치하였으며, 51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등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8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24개월에 걸쳐 도로 및 마을 골목길 관로 터파기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와 격려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 또한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면에서 몇 개 남지 않은 하수 미

처리 마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오수정화처리를 통해 보다 더 깨끗한 지방하천 및 섬진강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순호 군수는 "향후에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마을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례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사랑상품권' 일시 판매 중지...이달 20~25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구축작업 따른 조치

나주시는 오는 20일 자정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5일 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판매가 일시 중지된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전체 시스템 이전구축 작업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관내 54개소 금융기관의

상품권 판매 업무와 더불어 나주사랑 카드 전용 앱(App)인 'CHAK' 접속을 통한 충전 서비스 및 결제도 일시 중단된다. 한국조폐공사는 푸시알림, 카카오톡,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상품권, 카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지류 및 카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3100여 가맹점과 이용자가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번 조치에 이용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체육 진흥을 위한 법인 설립 첫발 내디뎈

화순군체육회, 법인 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



화순군은 지난 11일 화순군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열렸다 고 밝혔다.

화순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각 지방 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

라 법인화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3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남체육회가 정관을 승인하면서 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창립총회에는 최옥경 화순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 등 발기인 5명이 참석해 체육회 정관, 임원(46명) 선임, 기본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화순군의 법인 인가 절차를 거쳐 6월 중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군 체육회의 인가 신청 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전남도와 협의 후 인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며 "법인이 되는 화순군 체육회와 앞으로도 화순군 체육 진흥을 위해 긴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 황룡강 유채꽃 '만개'

3개 읍·면 48.1ha 규모 조성... 5월 중순까지 개화 시기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장성 황룡강에 유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제촉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통해 장성읍과 진원·남면에 유채단지를 마련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다.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농가에는 농지 사용료를 지급해 소득을 증대시킨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성군은 총 8개 지구 48.1헥타르(ha) 규모의 유채단지를 조성했다. 개화 시기는 황룡강 洪(홍)길동무꽃길축제 개최에 맞춰, 광주 인접지역인 진원·남면은 4~5월, 장성읍은 5월로 계획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봄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유채꽃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피어났다. 황룡강 상류 지점에서 만난 김모 씨(광산구)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만개한 유채꽃을 감상하니 행복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성군은 유채꽃 외에도 양귀비, 금영화, 수레국화 등의 봄꽃을 심어 황룡강변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또 강변을 따라 펼쳐진 노랑꽃창포 단지도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군 관계자는 "꽃강으로 유명한 장성 황룡강에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힐링(healing)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숲가꾸기로 대형산불 사전예방

구례군은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정원 주변 30ha에 산불예방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최근 산불로 인한 생활권 피해가 확대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행한 사업이다. 특히, 구례군 광의·산동면 일원은 서어나무 군락지 등을 밀도 높은 소나무 단순림이 둘러싸고 있어 산불에 취약한 환경으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나무 등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과 같은 기름 성분이 더 많아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군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가지를 제거하고, 숲 내 나무밀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나무 사이의 간격을 열어뜨리는 등 적극적인 숲 가꾸기로 대형 산불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